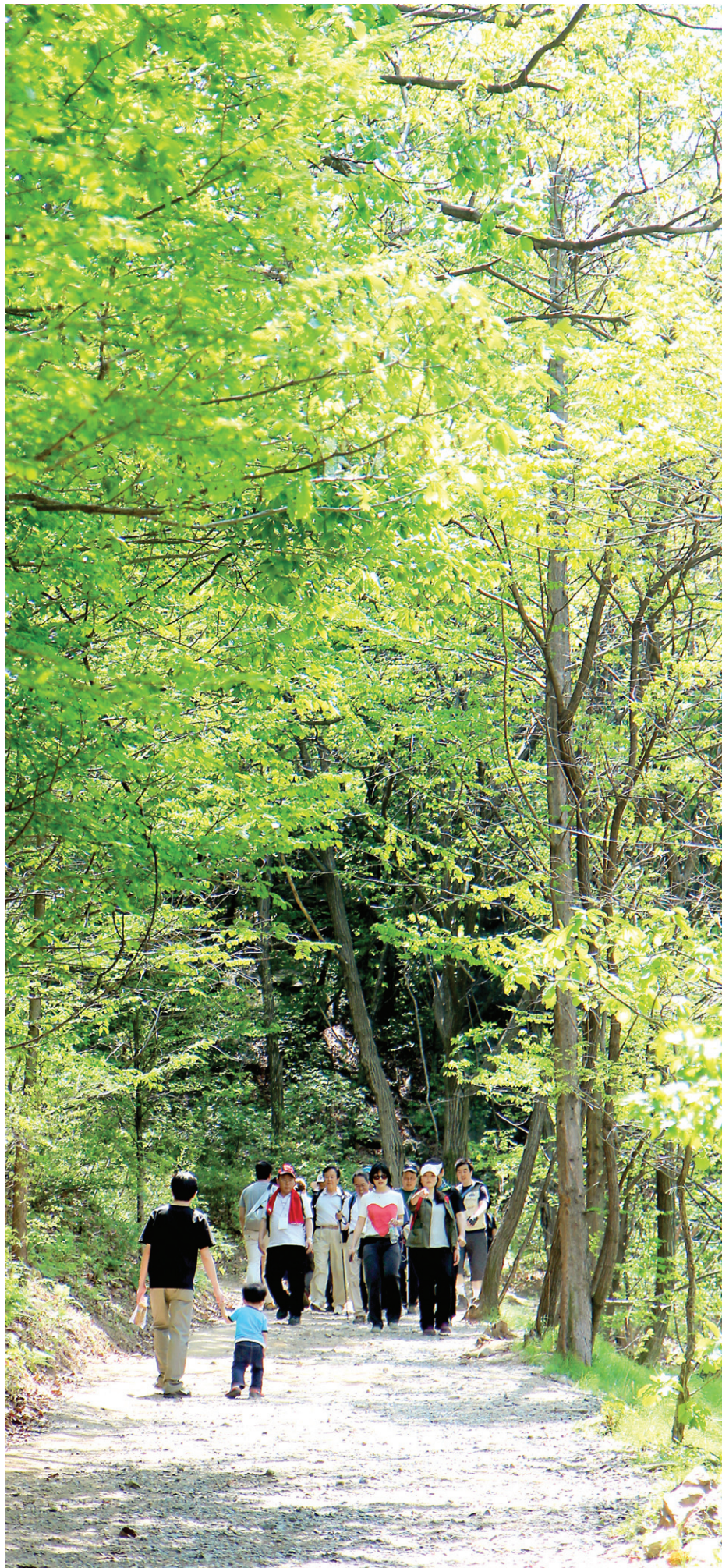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5월의 푸르름을 마셔보자



어린이의 손을 잡고 오르는 청계산 길에 푸르름이 가득하다.

③ 청계산 청계사, 천개사, 정토사

산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다.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가족·연인과 함께 산 곳곳에 자리한 산사에 둘러 시원한 약수도 한 모금 마시고 기도도 한다면 뜻 깊은 산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가장 부담 없이 산을 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청계산(淸溪山)은 서울에서 지하철 등을 이용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산 중 하나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계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많았다.

해발 618m의 청계산은 예전에는 푸른 산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흰 구름을 헤치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청룡산이라고 불렸다. 관악산과 더불어 서울을 지키는 좌정룡, 우백호로 알려진 명산이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청계산은 높지 않은 정상과 이로 이어지는 완만한 산길에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며 울창한 숲과 아늑한 계곡, 공원, 사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가족산행의 명소로 유명하다.

먼저 신분당선 청계산역과 양재동 진입도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있는 서울 서초구 방면으로 청계산 탐방을 시작했다.

서초구 방면의 첫 관문은 원터마을이다. 자연부락인 원터마을의 현재 모습은 아토티어 매장의 집결지다. K2, 밀레, 네파 등 수많은 아토티어 브랜드 전문매장이 등산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원터마을 한편에는 비구니 수행사찰인 천개사(天開寺)가 있다. 230년 이상 수령을 가진 갈참나무와 굴참나무가 있는 청계산 쉼터에서 오른쪽을 보면 천개사 표지가 나온다. 수많은 옷가게들의 광고판 틈에서 대개는 못보고 지나치기 쉽다. 1996년 건립된 사찰 수행사찰인 천개사에는 대형 약사여래대불이 눈길을 끈다. 진달래와 철쭉 꽃밭이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천개사 대웅전 옆 종무소 문을 두드리니 주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나와 차를 한잔 권했다.

“스님, 꽃과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청계산이 진달래로 유명한데 이미 졌을 시기라 조금 아쉽네요. 일찍 오시지”

사찰이 건립되기 전 청계산에서 40년 가까이 수행정진한 주지 계수 스님은 곱게도 높으셨다. 다시 나온 천개사에서 길마재 정자를 거쳐 매봉으로 오르는 길 왼편에는 청계가 흐른다. 계곡 사이사이에는 소풍 나온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천개사를 끼고 원터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하얀 철쭉길이 펼쳐졌다. 진달래산으로 유명한 청계산에서 아직 지지 않은 꽃들이다.

다시 청계산 입구로 돌아갔다. 원터마을로 이어지는 양재동 진입도로를 계속 따라가면 태고종 관현사로 이어진다. 텃밭과 함께 고즈넉이 자리한 사찰이다. 관현사 옆으로 나있는 길은 숲길이 아닌 포장도로지만 옆으로 뻗은 청계산 자락을 따라 자전거 등을 이용한 나들이객들이 많다. 다시 성남방향으로 길을 내려가면 청계산 두 번째 입구인 옛골을 통과한다. 원터마을과 같이 아토티어 매장과 함께 음식점들이 많다. 조금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온다. 그

길을 통과하면 내곡동에서 다시 고등동으로 지역이 바뀌며 성남 정토사(淨土寺)가 찾는 이들을 반긴다. 정토사는 아미타불 극락정토도량이다. 1982년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과 신도들의 발원에 의해 개산한 도량이다. 정토사는 8월 열리는 연꽃 축제로 유명한 연꽃절이다. 정토사 앞 마당에는 백련지와 홍련지가 조성돼 있어 여름이면 백련과 홍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잎으로 만든 연꽃 국수와 연향차도 맛 볼 수 있다. 연꽃이 만개할 때는 열리는 연꽃 축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다. 사찰 앞에 자리한 국수집에는 오찬으로 국수를 먹는 가족들이 많았다.

정토사에서는 봉오재, 이수봉, 절고개를 거쳐 청계사로 가는 능선길이 유명하다. 키 낮은 철문을 들어서면서 산행은 시작되고, 이수봉을 가리키는 꽃밭을 따라 어둠골이 나온다. 계단을 다 올라 능선 쉼터에는 한 무리의 오가는 산객들로 잠시 정제된다.

이수봉 정상 바로 앞에서 부대 철조망 갈림길을 만나지만 어디로 돌던지 짧은 거리를 돌아서면 한자리에서 만난다. 모퉁이를 돌아 만나면 국사봉으로 내려가는 하산길과 매봉으로 가는 절고개능선길이 만나는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에서 절고개능선으로 내려가면 의왕 청계사(淸溪寺)로 갈 수 있다. 절고개 능선을 따라 내려가니 전망대 가드는 목재로 튼튼하게 새로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대형 약사여래대불로 유명한 천개사 청계사는 청계산의 유일한 전통사찰

발길을 재촉해 청계사로 이동했다. 청계사는 청계산의 유일한 전통사찰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인 청계사는 신라시대에 건립돼 고려 충렬왕 10년(1284)에 크게 중창됐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도성 내 절들을 폐쇄했을 때 봉은사를 대신해 선종 본산으로 정해졌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현재 사찰의 모습은 1955년 이후 역대 주지 스님들의 중수로 이루어 졌지만 전체 규모와 가람의 배치의 조선 시대에 때부터 틀이 잡혀 내려오던 것이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완만한 돌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과천, 의왕 방면에서는 보통 청계산 남서쪽 중턱에 있는 청계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올라간다. 중턱부터 시작하기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은 없지만 산을 타기엔 적격이기 때문이다.

청계사는 높은 계단이 일주문이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다 보면 뺨뺨하던 고개도 절로 숙여진다. 고려말 학자인 목은 이색은 청계산에 대해 이런 시를 남겼다.

청룡산 아래 옛 절
얼음과 눈이 끊어진 언덕이
돌과 계곡에 잇닿았구나.
단정히 남쪽 창에 앉아 주역을 읽노라니
종소리 처음 울리고 닭이 깃들러 하네.

이색의 표현과 같이 한 겨울에도 얼음과 눈이 푸르른 청계산에서는 끊어질 것 같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미타 극락도량 정토사는 연꽃으로 유명하다.



비구니 수행사찰 천개사는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숲은 명소다.



청계사는 조선 연산군때 봉은사를 대신한 선종본산이었다.

가는 길

● 청계산 사찰길

- ▶천개사 길 : 양재역-원터골-천개사-길마재-돌문바위-매바위-매봉-망경봉-망경대-헬기장-청계계곡-옛골
- ▶청계사·정토사 길 : 인덕원역-10번마을 버스 종점-청계사-절고개 능선-이수봉-구름다리-목배동 삼거리-봉오재 삼거리-정토사-옛골

○ 가는 길

- ▶천개사 방면 :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역 하차, 양재역에서 4432번 841번 버스
- ▶청계사 방면 : 인덕원역에서 4424번 버스



옴마니반메흠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흠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록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흠을 마음속으로 읊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 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신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실상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서명,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지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화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풍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교 위령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